

2005년도 화재 구조 구급활동 분석 통한 사고없는 안전한 포천 建設

포천소방서(서장 최덕기)는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소방행정을 추구하면서 시민이 만족하는 소방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5년 한해는 화재진압, 구조, 구급 등 다양한 시민밀착형 소방업무에 내실을 기하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해이다.

지난해 포천소방서가 처리한 소방활동을 살펴보면, 먼저 화재분야에서 총 358건의 화재가 발생해 18명의 인명피해와 32억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전년도 대비 화재는 100건(39%)이 증가하여 1일 평균 0.98건이 발생했으며 재산피해는 10억 여원이 증가한 수치이다.

화재발생 장소는 공장·작업장에서 총 131건이 발생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주택·아파트 76건, 근린생활 34건, 자동차 32건, 동식물관련 30건 순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발생 원인은 전기화재가 7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티 42건,

담배 22건, 불량난 13건, 난로 10건 순이다.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 달은 12월로 총 61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요일별로는 주5일 근무제로 인한 토요일에 63건(18%), 시간별로는 오후 4시~5시 사이에 38건(11%)으로 화재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구급분야로 구조는 총 1,083건 출동해 669건에 315명을 구조했으며, 이는 전년도보다 92건(16%)이 증가한 수치이며 1일 평균 0.9명을 구조했다. 사고원인별로는 교통이 161명으로 가장 많았고, 산악 55명, 건축 52명, 수난 21명 순으로 나타났다. 구조가 가장 많이 발생한 달은 8월로 총 64명을 구조했다.

구급은 총 6,730건 출동하여 이송 4,646건에 4,858명을 이송하여 전년도 대비 365건(8.5%)이 증가했고 1일 평균 13.3명을 이송했다. 이송 내용별로는 질병 2,414명, 사고 부상 1,275명, 교통사고 802명, 약물중독 136명 순으로 발생하였으며, 이송건수가 가장 많이 발생한 달은



포천소방서는 2005년을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소방행정을 추구하며 시민이 만족하는 소방행정서비스를 제공한 해로 분석했다.

8월로 총 499명 등이다. 최덕기 포천소방서장을 비롯한 전 직원은 2005년도 업무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2006년도에도 한발 앞선 체계적인 현장대응을 통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재난사고 없는 편안하고 안전한 포

천을 건설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우리 동네를 말한다 53

군내면 용정1리 이장 한광성

종합운동장 연결路 주민 숙원



한광성 이장
군내면 용정1리

포천시 군내면 용정1리는 포천종합운동장이 소재하고 있는 곳으로 포천시내와 인접해 있는 마을이다.

원래 용정리는 용의 우물이 있었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으로 알려져 있으나, 용정1리는 과거 '신촌(新村)' 또는 '새마을'로 불렸었다. 새마을이란 이름처럼 주민들이 모두 부지런해 박정희 대통령 시절 포천중고를 방문한 대통령이 새마을운동 우수마을이라는 보고를 받고 시찰하려고까지 했다는 얘기가 전해지기도 한다.

용정1리의 역사는 회관 앞에 버티고 서있는 커다란 너티나무를 통해 엿볼 수 있다. 이 나무는 수고 18m, 둘레 5m 30cm로 1982년 포천시 보호수 14호로 지정됐으며, 수령은 400년으로 추정된다.

2004년부터 마을을 돌보고 있는 한광성(51) 이장으로부터 용정1리의 마을현황 및 발전상을 들었다. 용정1리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이기는 하나 포천시내와 포천시 주요 관공서가 인접해 있어 도시적인 생활환경을 띠고 있으며, 마을 가운데 용허리 형상의 동산을 경계로 1반과 2반이 나뉜다.

마을에는 90세대 25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원주민은 50호 100여명이 분포하고 있다. 주민들은 농업과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며, 농업의 경우 특작물보다는 벼농사 및 밭농사의 수도작을 위주로 생산이 이루어지고, 직장은 포천시내 및 인근 공장 종사자들이 주로 생활하고 있다.

한 이장은 "수도작이 주로 이루어지는 농업은 수입 면에서 현 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점점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농사를 짓는 마을주민들의 일부는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 인근 공장에 취업을 하거나 부업을 하기도 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용정1리는 한광성 이장을 중심으로 11명이 구성된 개발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노인회(회장 구화현), 새마을지도자(김영해), 부녀회(회장 박민숙), 청년회(회장 임종석), 총무(이광용)로 조직되어 있다.

개발위원회는 마을의 주요사안 등을 비정기적으로 모이고 있으며, 마을 운영의 핵심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노인회는 활동이 미약하지만,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청년회는 대

동회라고 부르고 있으며 마을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주축으로 1982년 포천시 보호수 14호로 지정됐으며, 수령은 400년으로 추정된다.

2004년부터 마을을 돌보고 있는 한광성(51) 이장으로부터 용정1리의 마을현황 및 발전상을 들었다. 용정1리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이기는 하나 포천시내와 포천시 주요 관공서가 인접해 있어 도시적인 생활환경을 띠고 있으며, 마을 가운데 용허리 형상의 동산을 경계로 1반과 2반이 나뉜다.

마을에는 90세대 25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원주민은 50호 100여명이 분포하고 있다. 주민들은 농업과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며, 농업의 경우 특작물보다는 벼농사 및 밭농사의 수도작을 위주로 생산이 이루어지고, 직장은 포천시내 및 인근 공장 종사자들이 주로 생활하고 있다.

한 이장은 "수도작이 주로 이루어지는 농업은 수입 면에서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점점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농사를 짓는 마을주민들의 일부는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 인근 공장에 취업을 하거나 부업을 하기도 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용정1리는 한광성 이장을 중심으로 11명이 구성된 개발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노인회(회장 구화현), 새마을지도자(김영해), 부녀회(회장 박민숙), 청년회(회장 임종석), 총무(이광용)로 조직되어 있다.

개발위원회는 마을의 주요사안 등을 비정기적으로 모이고 있으며, 마을 운영의 핵심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노인회는 활동이 미약하지만,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청년회는 대

동회라고 부르고 있으며 마을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주축으로 1982년 포천시 보호수 14호로 지정됐으며, 수령은 400년으로 추정된다.

2004년부터 마을을 돌보고 있는 한광성(51) 이장으로부터 용정1리의 마을현황 및 발전상을 들었다. 용정1리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이기는 하나 포천시내와 포천시 주요 관공서가 인접해 있어 도시적인 생활환경을 띠고 있으며, 마을 가운데 용허리 형상의 동산을 경계로 1반과 2반이 나뉜다.

마을에는 90세대 25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원주민은 50호 100여명이 분포하고 있다. 주민들은 농업과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며, 농업의 경우 특작물보다는 벼농사 및 밭농사의 수도작을 위주로 생산이 이루어지고, 직장은 포천시내 및 인근 공장 종사자들이 주로 생활하고 있다.

한 이장은 "수도작이 주로 이루어지는 농업은 수입 면에서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점점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농사를 짓는 마을주민들의 일부는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 인근 공장에 취업을 하거나 부업을 하기도 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용정1리는 한광성 이장을 중심으로 11명이 구성된 개발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노인회(회장 구화현), 새마을지도자(김영해), 부녀회(회장 박민숙), 청년회(회장 임종석), 총무(이광용)로 조직되어 있다.

개발위원회는 마을의 주요사안 등을 비정기적으로 모이고 있으며, 마을 운영의 핵심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노인회는 활동이 미약하지만,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청년회는 대

동회라고 부르고 있으며 마을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주축으로 1982년 포천시 보호수 14호로 지정됐으며, 수령은 400년으로 추정된다.

2004년부터 마을을 돌보고 있는 한광성(51) 이장으로부터 용정1리의 마을현황 및 발전상을 들었다. 용정1리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이기는 하나 포천시내와 포천시 주요 관공서가 인접해 있어 도시적인 생활환경을 띠고 있으며, 마을 가운데 용허리 형상의 동산을 경계로 1반과 2반이 나뉜다.

마을에는 90세대 25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원주민은 50호 100여명이 분포하고 있다. 주민들은 농업과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며, 농업의 경우 특작물보다는 벼농사 및 밭농사의 수도작을 위주로 생산이 이루어지고, 직장은 포천시내 및 인근 공장 종사자들이 주로 생활하고 있다.

한 이장은 "수도작이 주로 이루어지는 농업은 수입 면에서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점점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농사를 짓는 마을주민들의 일부는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 인근 공장에 취업을 하거나 부업을 하기도 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용정1리는 한광성 이장을 중심으로 11명이 구성된 개발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노인회(회장 구화현), 새마을지도자(김영해), 부녀회(회장 박민숙), 청년회(회장 임종석), 총무(이광용)로 조직되어 있다.

개발위원회는 마을의 주요사안 등을 비정기적으로 모이고 있으며, 마을 운영의 핵심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노인회는 활동이 미약하지만,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청년회는 대

지혜대 기자 94spice@hanmail.net

“주변 어려운 이웃돕기 나서자” 다짐 본지 주부명예기자단 제9차 정기회의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단장 임경순) 제9차 정기회의가 지난 12일 오전 10시 30분 본사 대회의실에서 50여명의 주부명예기자단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 제9차 정기회의가 지난 12일 오전 10시 30분 본사 대회의실에서 50여명의 주부명예기자단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 주부명예기자단은 불우이웃돕기 창구 활성화를 위해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여 설명절 이전에 돕기운동에 나서기로 의결했다.

또 지역의 크고 작은 소식을 전달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소식을 적극 발굴해 나가기로 했으며, 명사가 권하는 책 한권을 읽고 독후감을 쓰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의결하기도 했다.

아울러 주부명예기자단은 2006년 새해 첫 모임으로 각자 신년인사를 통해 포천신문이 그동안 펼쳐온 다양한 활동으로 포천사회에 크고 작은 역할을 해 왔음을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며 2006년 새해에도 포천신문과 더불어 주부명예기자단 각자 모두가 기원하는 인사와 다짐의 자리도 마련했다.

특히 포천동의 김진남 주부명예기자는 “이 자리에 참석해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 모임 때마다 꼭 참석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해 큰 박수를 받기도 했다.

한편, 임경순 주부명예기자단장은 “2006년 주부명예기자단의 활동이 보다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최두열 본지 전문시사는 “주부명예기자단의 2005년 활동에 큰 박수를 보내고 올해도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연천 지역 농산물 안전성조사 결과 45품목 536건중 525건 적합, 11건 부적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포천·연천출장소(출장소장 정혜승)에서는 2005년도 포천·연천지역에서 생산·저장·출하되는 농산물 45품목 536건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525건은 적합, 11건은 부적합농산물로 적발되어 2.0%대의 부적합비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 11건(시금치3, 열갈이배추2, 찬나물2, 오이3, 수삼1, 시호1, 황기1)에 대해서

는 자율폐기나 출하연기 등의 조치를 통하여 시중 출하를 사전에 차단하였다고 밝혔다.

농산물안전성조사는 재배포장 또는 집하장 등에서 출하 전 시료를 수거하여 농약 등 유해물질이 잔류 허용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공급함으로써 우리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향상과 품질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농산물 중 국민인당 1일 섭취량이 많은 품목(쌀·배추 등), 주로 생식으로 섭취하는 품목(상추, 풋고추 등), 부적합비율이 높거나 소비자 관심이 큰 각종 열매류·과실류·과채류 등을 대상으로 하여 2006년도에도 잔류농약검사가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포천·연천출장소 정혜승 소장은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농약사용량 및 살포횟수 등 농약안전사용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부주의한 농약사용으로 농업인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농가 스스로 농약명이나 포장지의 안전사용기준을 눈여겨 살피고 기준을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포천신문의 귀와 입 역할하자”

본지 조사위원회 제8차 정기회의

포천신문 조사위원회(위원장 김중현) 제8차 정기회의가 지난 12일 본사 대회의실 개최됐다.

이번 정기회의는 2006년을 맞아 첫 회의로 위임을 상하간 신년 인사와 더불어 안병완 위원이 신입위원으로 위촉됐다.

또 지난 한해 동안 추진했던 불우이웃돕기 참여의 건을 논의하고 향후 관심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계좌이체를 통해 불우이웃돕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본지 최호열 발행인은 “창간 16주년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 조사위원회에 감사한다”고 말하고 “출범 3년째를 맞는 조사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임원과 일반 위원제도를 없애고 조사위원회를 정예화하고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60여명으로 축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호열 발행인은 “올 한해를 밝고 투명한 포천사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 설 것”이라며 “조사위원회가 정착되고 활성화되어 큰 힘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김중현 조사위원장은 인사말을



포천신문 조사위원회 제8차 정기회의가 지난 12일 본사 대회의실 개최됐다.

통해 “금년 한해는 각 읍면동에서 2-3명의 조사위원을 선임해 포천신문의 귀와 입의 역할을 하자”면서 “16만 포천시민과 포천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포천신문을 적극 지원하자”고 말했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풍산 그라비아 POONGSAN GRAUVRE 포장지 생산 제조라인을 모두 갖춘 전문회사 풍산그라비아는 포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생명력을 가진 식품 포장재 생산!!!

좋은 품질과 저렴한 가격으로 포장재를 생산합니다.



생산 품목

- 지퍼백, 진공포장지, 제과봉투류
- 커피봉투류, 각종 호일팩류
- 애견 식품 및 용품포장류
- 뉴시용품 포장지류

가공 제품

- 스탠딩삼방, M자가공,
- 스탠딩지퍼, T자가공, 지퍼삼방
- 기타 다양한 가공, 생산설비보유

용도

- 농산물 가공식품, 수산물 가공식품
- 축산물 가공식품, 조리식품
- 기타 각종비닐포장지류



본사 및 공장 : 경기도 포천시 자작동 600-4 / 전 화 : (031) 536-3531 / 팩 스 : (031) 536-3530 / H·P : 011-279-4002 / 대 표 : 최 정 택